

KAL이 '이륙'시킨 국민연금 주주권 남양유업 등 상장사 "나, 떨고 있니?"

국민연금, 297곳 지분 5% 이상 보유
기업 스튜어디스십코드 활성화 전망
대림산업·남양유업 등 다음 타깃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본격 나서면서 대한항공·한진칼 이후 다음 기업이 어디일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횡령·배임, 사익편취, 낮은 배당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참여가 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직접경영보다는 경영책임을 묻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7일 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 중인 기업은 297개다. 이중 지분이 10% 이상인 기업은 81개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화승엔터프라이즈(13.88%)다. 이밖에 한진칼(13.47%)을 비롯해 한솔제지(13.62%), 동아에스티(13.43%), 한국콜마(13.41%), BNK금융지주(13.33%) 등도 13% 이상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지분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9개사의 국민연금 지분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10.73%, SK하이닉스 5.08%, 현대차 9.2%, LG화학 12.47%, 셀트리온 12.7%, 포스코 9.21%, 네이버 7.03%, 한국전력 11.99%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디스십코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스튜어디스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주주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이자 모범 규범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투자자로서 배당을 받거나 주식평가액이 높아지면서 이익을 얻는 투자자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은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스튜어디스십코드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만큼 스튜어디스십코드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만 공적연금이란 특성상 대한항공·한진칼과 같이 주주 가치 훼손 등 명백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는 어렵다.

먼저 국민연금 금융운용위원회가 정한 '수탁자 책임 원칙' 중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중점관리사안이란 ▲횡령·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일기 사익편취

행위 ▲임원보수한도 과다 ▲

기금분부가 의결권지침에 따라 지속 반대했지만 개선이 없는 것을 말한다. 또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직접경영보다는 경영책임을 묻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대림산업, 남양유업, 현대그린푸드 등을 다음 타깃으로 점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림산업의 지분 10.09%를 소유하고 있다. 오는 3월 21일 장달중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지만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장 사외이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연임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저배당 중점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의 지분을 각각 9.63%, 8.76%를



보유하고 있다.

김남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민변 부회장)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변화되고 있으나 부결된 건수도 증가 추세"라며 "주주권 행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연대를 통해 의결권 행사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앞으로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와 그렇지 않은 주주권행사를 구분하는 비현실적이고 도식적인 구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스튜어디스십코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주권행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라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올 신입사원 채용 60% 불과 전년비 15%p↓... 취업 먹구름

기업 628곳 정규직 채용 계획

신입사원 초봉 평균 2536만원
경력 채용 기업도 51.6% 불과

올해 기업들의 신입·경력 채용 규모가 모두 전년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사람인이 기업 628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정규직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올해 신입 채용을 계획하는 기업은 59.6%로, 지난해 신입을 채용했다는 응답(75%)보다 무려 15%포인트 적었다. 같은 조사에서 기업들이 신입을 채용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건 2015년 조사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신입 채용 방식은 기업 10곳 중 7곳이 '수시'라고 답했다. '공채와 수시 모두' 활용하는 기업은 21.4%였으며, '공채'만 뽑는 곳은 9.6%였다. 신입 채용 시기는 절반을 약간 넘는 51.3%가 '상반기', 하반기 모두를 뽑았다. 이어서 40.1%는 '상반기'를 선택했으며, 8.6%는 '하반기'라고 응답했다.

올해 신입사원 초봉은 평균 253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입사원 채용 예정 분야(복수응답)는 '영업/영업관리'가 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조/생산'(22.7%), 'IT/정보통신'(16.6%), '서비스'(16%), '연구개발'(13.9%) '재무/회계'(9.1%), '디자인'(7.8%), '기획/전략'(7.8%), '인사/총무'(7.5%), '마케팅'(7.2%) 등이 있었다.

경력 채용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워 있다. 올해 정규직 경력사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51.6%로 절반에 그쳤다. 전년(2018년) 경력직을 뽑은 기업이 63.7%인데 비해 12.1%포인트 낮은



수치다.

경력사원 채용 방식(복수응답)은 '수시'(74.1%)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취업포털 인재검색'(29.6%), '공채'(23.1%), '사내 추천'(18.8%), '헤드헌터'(9.9%) 등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선호하는 경력 연차는 평균 4.6년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3년차'(47.8%), '복수응답'(37.7%), '2년차'(23.8%), '1년차'(18.8%), '4년차'(18.5%), '7년차'(12.3%), '6년차'(10.2%), '10년차'(9.3%) 등의 순이었다.

경력사원 채용 예정 분야(복수응답)는 '영업/영업관리'가 26.5%로 1위였다. 이어서 '연구개발'(19.1%), 'IT/정보통신'(17.6%), '제조/생산'(17.3%), '서비스'(15.4%), '기획/전략'(10.5%), '마케팅'(9.3%) '재무/회계'(7.7%), '디자인'(6.8%) 등이 있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 '지나해와 비슷'(47.9%)하거나 '악화될 것'(41.4%)이라고 내다봤으며,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10.7%에 불과했다. 올해 채용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지나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 52.4%였고, '악화될 것'이라는 답변도 36.9%나 됐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0.7%로, 전반적으로 채용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한홍수 기자 hys@

JY와 산책 이후 'SK협력사' 찾은 文

文 대통령, 수소경제 보고회 참석
울산 덕양의 수소생산 공장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5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17일 울산에 위치한 중견기업 '덕양'의 수소 생산 공장을 방문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새해 첫 지역경제 투어로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수소경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후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덕양의 울산 제3공장을 찾아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덕양은 1964년 창업된 산업가스 공급 전문기업으로 주력 분야는 '수소가스'로 알려졌다. 실제 덕양은 한국과학기술원과 수소속속흡수연구를 2년간 시행했고, 수소저장합금개발 특허를 획득했다.

김기철 덕양 사장은 문 대통령이 울산 공장을 방문하자 "덕양은 지난 2014년 SK에너지와 협업을 통해 중견기업으로는 '세계 최초 대규모 수소공장'을 이곳에 건립했다"며 "지금까지 대규모 수소공장은 대기업과 다국적 에너지회사의 전유물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광역시 남구 덕양 제3공장을 방문, 공장 관계자에게 수소생산 공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올해 (덕양의) 매출액은 약 4000억원을 기대하고 있다"며 "덕양의 수소생산은 도합 시간당 20만m³으로 울산·여수·군산에 수소를 공급 중"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덕양 울산공장을 방문하자 일각의 시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향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문 대통령에게 '삼성공장 방문'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삼성공장 방문' 제안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중견기업인과의 대화' 행사 후 경제 산책 때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산책 당시 "지난번 인도 삼성공장에 와주셨지만 (이번에는) 국내 공장이나 연구소에 한 번 방문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얼마든지 가겠다"며 "(다만)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대거나 연구소를 만든다면 얼마든지 가겠다"거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9일 인도에 위치한 삼성전자 휴대폰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우승준 기자 dn114@

한화, 태양광사업 집중... 中 수혜 기대

한화그룹이 올해 태양광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계획을 내비친 가운데 중국이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을 앞두고 있어 한화케미칼의 규모있는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올해 태양광, 방산을 미래 먹거리로 내세우고 대규모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화는 오는 2022년까지 약 9조원을 태양광 발전 장비 생산 공장 신·증설과 발전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효율적인 태양광사업을 위해 통합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지난해 한화케미칼은 한화큐셀코리아와 한화첨단소재

를 합병해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로 개편하고 한화큐셀은 한화솔라홀딩스에 합병시켰다. 한편 태양광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태양광사업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진다.

글로벌 태양광산업의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는 중국내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 재개 등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입지·발전 효율이 높아 보조금이 필요 없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4년간 장비·공장에 9조원 투자
중 대규모 태양광프로젝트 재개

설치 허가를 재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확대를 의미하는 정책을 펼치자 최근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을 겪었던 태양광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시장이다.

중국 외 글로벌 시장에서도 태양광산업의 성장세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희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태양광시장은 중국 외에도 유럽, 미국, 인도, 남미 등에서 고른 성장세가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김유진 기자 ujin6326@